



「머피의 법칙」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은 틀림없이 일어난다.』 미국의 인기 텔레비전 드라마 「스타트랙」에서 부지휘관 데이타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나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틀림없이 일어난다.』는 파이어나글의 법칙도 있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언제나 잘못되고야 만다.』는 치솜의 법칙도 있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1949년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있었던 충격 완화장치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 한 기술자의 사소한 배선실수가 원인이었다. 이때 현장에 있던 머피 대위가 이렇게 한탄했다는 것이다. 『뭔가 잘못될 수 있는 일이라면 틀림없이 누군가 그 잘못을 저지르게 마련이다.』

지난번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재(天災)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 피해는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극소화시킬 수 있다. 그것을 게을리할 때 천재는 인재를 부르게 된다. 하늘은 우리가 천재에 대하여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마다 수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해왔다. 어느 댐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느 제방이 허술하고, 어느 강의 하상이 높으며 어디의 배수시설이 미비한가를 번번이 비싼 값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어 왔다.

산업재해연구가인 하인리히가 알려준 법칙에 이런 게 있다. 『한 건의 사고가 일어나기까지는 29건의 소사고(incident)가 있고, 또 그러기까지는 300건의 이상(異常)상태(irregularity)가 있다.』

지난 85년 프랑스국립수혈센터가 에이즈균에 오염된 혈액으로 만든 약품으로 임산모 수술자들 1000여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그것

은 헌혈자(獻血者)의 선택이 영성했으며 정부가 혈액테스트 제도의 도입을 서두르지 않은 때문이었다는 것이 기소이유였다. 기소문에는 피고들이 직무수행상의 「주의 의무」와 「신중함과 안전을 기하는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적혀 있었다.

우리업계에도 최근 양륙축협 조합장 이중해 씨가 부실경영, 비자금 조성 파문 등으로 중도 사퇴하는 비운을 겪었다. 올 연말까지 경영적자가 4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양륙축협의 장래가 불안할 뿐이다. 제대로 사업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본질을 파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숙명적으로 그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다.』 산타나야의 법칙이다. 그러나 아무리 과거를 기억한다해도 책임자들이 무책임하고 「신중함과 안전을 기하는 의무」를 게을리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또다른 교훈을 너무나도 값비싼 값을 치르고 배울 수 밖에 없다.

우수사슴 선발 「모방」

협회에서 지난 93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우수 사슴 선발 행사가 벌써 8년을 뛰어 넘었다.

92년부터 완전개방된 사슴수입의 소용돌이가 양륙업계를 강타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일환으로 우수사슴 선발에 나선 것이다. 국내에도 이렇게 훌륭한 녹용을 생산하는 우수사슴이 있는데 구태여 수입사슴을 찾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자존심의 발로였다.

이러한 우수사슴의 선발에 힘입어 수입사슴으로 동요하던 양륙업계는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사슴개량의 불씨를 지피기에 이르렀다.

우수사슴으로 선발된 일부 농장주들의 비양심적인 자육 분양과 사슴의 나이, 녹용성장 일수를 속이는 경향이 없지 않았으나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욱 강했다고 자평할 수 있다.

녹용의 품질을 결정짓는 과학적이고 객관적

인 잣대로 희분함량을 심사사항에 포함시켜 양질의 녹용생산을 유도하는데 일조했으며, 우수사슴을 대내외 알리고자 심사위원회에 정책 담당자, 한의학계, 축산학계, 소비자단체 대표를 포진시켜 국산녹용을 홍보하기도 했다.

나아가 우수사슴 선발은 협회의 정관과 규정에 의해 행해지는 공공적 기능을 띄고 있는 연례행사로 사슴사육 농가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벤트로 승격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협회의 우수사슴 선발 행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사슴전문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우수종류 지상전시」나 「우수사슴 지상전시」나 하며 협회의 우수사슴 선발 행사를 「모방」하는 이러한 행태는 정말 자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양록업이 특수한 분야라 할지라도 어느 축산전문지가 규정없이 한우, 젓소, 돼지, 닭, 기타가축 등등을 우수축종 이라며 지상전시하고 있는가. 그 업계에서 고유기능을 부여 받은 생산자단체인 협회가 주도하고 있음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 아니던가.

오히려 협회의 우수사슴 선발행사가 굳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전문지가 역행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일부 사슴사육농가에서 우수사슴 심사비와 홍보비 부담을 운운하며 전문지의 「지상전시」에 참여하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협회의 다소 까다로운 심사규정인 희분함량, 녹용길이, 각관분지 길이 등을 피해가며 생산량(무게)만을 내세워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의문시 된다.

협회는 선발된 우수사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발부에 8년간의 조사자료를 제공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으며, 이를 토대로 우수사슴에 선발된

축주에 메리트(경제효과)가 돌아가도록 연구중에 있음을 밝힌다.

아울러 업계의 질서를 계도해야 할 전문가가 우수사슴 선발에 찬물을 끼얹는 「모방」행위는 마땅히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열정어린 자만이 성공한다.

지난 8월 29일 충남 성환에 위치한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발부 대회의실에서 관련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농촌의 희망, 사슴사육」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충북 영동 명천사슴목장 배소식 사장의 「생산물 판매가 성공의 열쇠」란 주제발표 내용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배사장은 저명저명한 목소리로 사슴을 사육하려면 자신의 열정을 모두 바쳐 땀을 쏟아내야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재미로 부업삼아 사슴을 사육하며 얼마후 없어질 농장으로 인상을 풍기는 곳이나, 비전과 진취성이 결여된 무능한 사육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종 산야초를 직접 채취하여 사슴에 급여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직업의식으로 소비자에 신뢰를 심어줄때 생산물 판매가 배가된다고 역설했다. 값비싼 갈잎이나 알팔파 등 한두가지 수입 조사료에 의존하여 생산한 제품은 가격경쟁력 면에서도 불리하지만 소비자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슴유통이나 넘보고 갈잎 취급으로 수수료나 챙기려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슴사육자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슴사육은 내가 편리한 대로가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추구할 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종합하여 배사장은 △생사비가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야 판매에 성공할 수 있다 △환경이 청결하고 다양한 산야초를 손쉽게 채취하여 급여할 수 있는 사슴



농장 위치선정이 판매성공에 영향을 미친다
 △투철한 직업의식과 사명감으로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경쟁력 없는 백화점식 농장운영 보다 전업화를 이루고 전문 양육인이 되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반자적 관계로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성공 한다고 요약했다.

이러한 충분조건을 갖춘 배사장은 생산된 녹용을 양당 3만3천원에 전량 소매 한다고 들려주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통사슴 한마리」를 개발하여 녹용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꽃사슴은 1백기십만원, 엘크는 1천기백만원에 선보여 기십두 판매하는 실적을 거두었다고 소개했다. 소비자가 녹용, 녹혈, 녹육에 푹 빠져 사슴의 신비를 체험하도록 개발한 아이템인 것이다. 배사장은 사슴요리에도 관심이 많아 현재 부산에서 「백록담」이란 대형 사슴전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고 한다.

비록 산야초를 채취한다든가 갈잎을 꺾어 모으는 과정은 힘들지라도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땀의 결정체를 볼때마다 커다란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많은 사슴사육 농가들은 귀담아 듣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상생」의 교훈

이팔청춘 열여섯 꽃다운 나이의 처녀가 갑자기 죽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슬픔도 내비치지 못하고 부랴부랴 주검을 조용히 내다 산에 묻었다. 소문을 들은 친구가 문상을 했다. 『너무 슬퍼 말게. 자네 딸은 원래 옥황상제의 시녀였네. 꽃 한 송이 잘못 다뤄 이승에 내려왔다가 이제 그 형기를 끝내고 돌아간 것이네.』 우리 조상들의 상생(相生) 상보(相補)의 정신을 보

여주는 옛날 이야기 한 토막이다.

상생은 음양오행설에서 나온 민속어로 한의학에서 활용되다가 한국 근대 민족종교에서 종지(宗旨)로 이념화 되기도 했다. 오행은 금수목화토(金水木火土) 다섯 요소의 순행을 말한다. 물은 나무를 낳고(水生木) 나무는 불을 낳고(木生火) 불은 흙을 낳고(火生土) 흙은 금을 낳고(土生金) 금은 물을 낳는다(金生水). 이렇게 서로 도와 공동의 새 것을 만드는 관계가 상생이다.

상생의 반대는 상극(相剋)이다. 물은 불을 죽이고(水剋火) 나무는 흙을 파고(木剋土) 불은 금을 녹이고(火剋金) 흙은 물을 빨아들이고(土剋水) 금은 나무를 편다(金剋木). 이렇게 서로를 억제하여 결국은 없애버리는 것이 상극이다. 상생은 순리(順理)이고 상극은 역리(逆理)인 것이다. 서로 비기는 상쇄(相殺)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상극관계다.

한의학에서는 심장은 화, 비장은 토, 간장은 목, 신장은 수, 폐장은 금으로 보았고, 치료나 보약을 지을 때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한다. 요즘 유행하는 스트레스 율화병(鬱火病)은 바로 심화(心火)다. 종교에서는 구한말 강증산(姜甞山·1871~1909)이 상생의 원리를 종교 이념화하여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고 지금도 증산교가 살아있다.

종교의 종지가 되었던 상생의 높은 원리가 근래 우리 정계에 새롭게 등장 하더니 효(孝) 충(忠) 등 다른 낱말들처럼 정치에 오염되어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상생이 상생을 낳지 못하고 상생정치를 부르짖은 이에게 율화병만 돌워 답답하던 찰나에 최근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상생의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천만다행이다.

정치도 정치려니와 우리 양록업계도 상생 보다는 상극을 조장하는 이들을 설득하고 아울러 상생의 양록업으로 승화시켜야 할때라고 본다. *